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정: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2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전서 2:4)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신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로 풍성한 2월을 약속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그럼에도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행 26:20). 모든 초침을 십자가에 맞추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총력 교회주변 전도와 CMTC가 2월에도 계속됩니다. 매월 1회 당회장과 85명의 시무장로들이 모여 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기당회가 2월에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후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한 결정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 2009년 첫 번째 학습 및 세례식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며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청지기훈련이 2월 20일 금요일인 2월 25일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단지 신앙인격을 위한 훈련과 예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헛된바(살전 3:5). 이 모든 일련의 교육과 예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롬 1:1). 세상과 분리됨과 동시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2월이 되도록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

주제 : 그리스도의 기도(시편 16:1)

일시 : 2월 20일 금요일양집회 시

장사 : 김성관 위임목사

생명의 말씀(금요일양집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16~17)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롬 1:1).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다 버리고 이 복음만을 붙들었다. 그 이유, 즉 복음의 근원을 밝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은 자만이 아니다. 복음에는 내용과 목적과 근원이 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며,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 안에 나타났다고(고전 1:18). 십자가의 도 안에 모든 민족,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나타난 것이다(골 14:6; 고전 1:24).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은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원리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인간을 새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골 2:5~6).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주관적인 소질이나 속성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은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인간의 믿음이 복음으로 하여금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 인간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한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의 새 시대에 참여하게 된 사실 그 자체이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세계에 속하여 있음을 확인하는 그것이 곧 믿음이다(골 1:13~14).

유대인 바울에게 세상 사람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두 종류뿐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제공되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차별이 사라지고 오직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한 가지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의치고 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진리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전혀 없는 진리이다(갈 3:28). 복음과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두가 율법 아래 매였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갈 3:25~26; 롬 2:12,14).

죄와 의로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완수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새 메시아의 세계를 가져다 주신 지금에도 이 의로움의 문제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율법이 주장하는 의로움보다 가깝거나 또는 의로움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다(마 5:20). 즉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복음 역시 의를 다루고 있다. 복음 안에 있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 새 시대의 의로서 영원하다. 이 의로움은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의로움은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의다(빌 3:9).

구속의 역사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고후 5:21).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개입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죄를 알지도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죄짐을 지게 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복음 안에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라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가 곧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시대의 의이며 십자가의 의다(고전 2:2).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의로움을 가진 것으로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된다. 의로움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하나는 율법을 성취하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것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움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는 곧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SAVE SOME

*To the weak I became weak, that I might win the weak;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so that I may by all means save some.
(1Corinthians 9:22)*

All Christians know that we should share our faith. As a true believer, Paul was eager to share his faith with everyone. He did not care if the person was a Jew or Gentile. He never let pride interfere with Jesus Christ's great commission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Mk. 16:15). Too often Christ's great commission is our great omission. Today's believers are afraid or intimidated to tell others of Christ. Sadly, the greatest lack in today's churches is evangelism. The gospel is a wonderful message. It is God's top secret to eternal life. How can we rid ourselves of the fear of sharing our faith? How can we save some from eternal destruction?

Compassion is paramount in sharing the gospel. Paul said,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1Cor. 9:22). He was willing to change because he deeply cared about the souls of others. His heart contained real love. He gave up himself anytime, anywhere, and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to talk about the meaning of faith in Jesus Christ. Before Paul met our Lord Jesus Christ, he was a proud Pharisee. He would have never spoken to others about God in a loving and kind manner. He was a highly religious man who thought himself above others. He hated and tried to destroy the primitive church in its fancy. Paul was changed forever when he met Jesus on the road to Damascus. This new convert became filled with compassion for the lost. He pursued, prayed, and pleaded with them to come to Jesus. This former persecutor became a preacher of the gospel. No matter how many times he was beaten and stoned, he still preached Christ. No matter how many times he was left hungry and starving, he still preached Christ. No matter how many times he was jailed, he still preached Christ. He did not give up but persevered and continued to reach lost people in dangerous places because he truly understood that the gospel, the good news, was for everyone. For him, Jesus was the extreme example of pure compassion, especially on the cross. Compassion conquers cowardness and creates courage. If you really care about somebody you will overcome your fears and share your faith with them because if they accept Jesus their soul will be saved.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key in sharing the gospel. Paul said, "...so that I may by all means..." (1Cor. 9:22). Different people require different communication. Some people need to be told about Jesus softly, while others need to hear the gospel with a loud bang. Paul talked and acted in accordance to the person or crowd he faced. If he was with

Jews, he talked and acted like a Jew. If he was with Gentiles, he talked and acted like a Gentile. If the Jews didn't eat pork, then he didn't eat pork. If the Gentiles ate pork, then he ate pork. If the Jews took off their shoes upon entering their homes, then he took off his shoes before entering their homes. If the Gentiles wore shoes into their homes, then he wore shoes into their homes. Paul removed the cultural barriers that separate one man from another. He added Christ to his communication to bridge all gaps. At some point in witnessing Christ, words are required. Jesus said to the woman at the well, "Give Me a drink" (Jn. 4:7). What a great start to an awesome conversation. Philip said to the Ethiopian reading the prophet Isaiah,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Acts 8:30). This is another wonderful conversation starter. By all means is an unlimited avenue to communication. Are you willing to put your faith on the line and be kind to the people God places before you? Are you willing to go out and communicate Christ to non-believers?

Confidence is vital in sharing the gospel. Paul said, "...so that I may by all means save some..." (1Cor. 9:22). Paul expected a result. If you want to save some, you need to have confidence. You need to witness in faith! In writing to the church in Rome, Paul told them, "if somehow I might move to jealousy my fellow countrymen and save some of them" (Rom. 11:14). He also told them,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 8:28). When Jesus sends you, you can be confident that He will do His will through you. Paul shared the gospel even while in jail. He went to the Philippians and they beat him and imprisoned him, yet he continued to pray and sing hymns to God, and God opened his jail doors so that he could continue evangelizing. Paul told Timothy,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 (2Tim. 4:1-2). You can always be confident in Christ. There is never a circumstance or situation where He cannot prevail.

God wants everyone to come to faith. Can He use you to save some? Do you have His love in your heart? If so, then communicate the gospel to those God brings before you in confidence, knowing that Jesus is the answer to every human problem or dilemma. Reach out to the lost people that you meet everyday and by all means save some. Amen. ■

다움 주일 설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22)



김성완 목사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신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믿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자신의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상명령에 대해 너무나 태만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슬프게도 현대 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일곱 비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고전 9:22). 그의 깊은 관심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로 하나님에 대해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고위 종교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여 성도들을 중용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회심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으라고 설득하고 기도하며 간청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자가 이제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는 계속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참고 견디며 위험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자들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복음, 곧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순전한 사랑을 보여주시신 최고의 모범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정복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한다

대화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무쪼록...”(고전 9:22). 사람마다 전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부드럽게 전해야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이나 군

중에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말하고 행동했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으면 그들의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집에 신을 신고 들어가면 그 역시 신을 신고 그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문화의 장벽을 헐었습니다. 그는 모든 문화적 간격을 해결한 후에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시점에서는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요 4:7). 이 첫 마디는 놀라운 대화로 이끌어 가기에 참으로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없는 것을 깨닫느냐”(행 8:30). 이 질문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쪼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소멸되도록 무한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인도하신 사람들에게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밖으로 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 9:22). 바울은 결과를 기뻐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롬 11:14).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바울은 심지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고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2).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심화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극복하지 못할 환경이나 상황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기를 원하십니다.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도 좋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문제나 딜레마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1. 28.)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

(로마서 1:18~32)



의 것이 된 것이다(롬 1:5~6).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에게 내리친 말할 수 없는 은총이며 담대히 전해야 할 복음이다(롬 1:8, 16~17). 이 은총을 로마서 1장 전반부(1~17절)는 기록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기록하였다(롬 1:18~19).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들은 한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의 은혜를 낭용하였다.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정욕대로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롬 1:24~25).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두셨다(롬 1:26~27). 결국 한때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복음의 은총,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라져버렸다(롬 1:28). 무엇이 진적이요 가짜인지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였다(롬 1:29~32).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 공로를 더욱 의지하였다. 영원보다는 현실의 삶을, 복음보다는 인간들이 처한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우선시 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죄를 선택했던 것이다(롬 1:21, 23). 복음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세상의 것들과 섞었다. 완전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남아있기에 신자들도 이러한 속임수에 쉽게 속았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어떤 형상에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신 4:16~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8). 교회의 머리와 근본, 친히 만물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들, 복음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인간 자신에게로 쏠게 만들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의 악한 선택이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 기쁨과 감사, 찬양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롬 1:1).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총이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

드렸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와 기쁨, 찬양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들은 이를 배반하고 외면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진노와 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호 4:17).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채웠다면(엡 4:19~20),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세상의 것들, 인간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만들었다(롬 1:25).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언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요 8:12~13). 하나님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이것을 거부한 것은 바로 우리이다.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 타협과 중도는 없다. 오직 믿음과 순종뿐이어야 한다.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위선과 위식을 버려야 한다. 위식자와 위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의 경고를 잊지 말자(마 23:13~16, 23~27).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저주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33). 우리의 말씀을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계속된 은총의 기회를 외면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마 23:36~38). 따라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하여 주신 은총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자.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은 한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욕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은 벌하시기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들은 스스로 진노의 형벌을 선택하였다. 위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삶으로 인해 가정, 교회, 사회는 우상들로 가득해졌다. 이 사회를 고쳐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지만 헛된 수고일 뿐이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아들에게 남은 것은 진노의 심판뿐이다. 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버려두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은가? 우리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눈물로 회개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막을 수 있다. “아버지여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세”(산 27:6). 세상의 것이 되었고,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자.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66

* 18주 할로새막기도전(사복 4:9)에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부적절한 요구

(10:35-45)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을 뿐 자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았다. 매번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들로 가득했다. 이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이며 문화와 전통에 얽매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세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간구하였다(막 10:35). 주님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막 10:37). 이 두 제자는 “우리의 영광중에서”라는 거룩한 표현을 써 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였다. 위선과 위선으로 가득한 모습이다. 이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질문하였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대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막 10:38). 이들은 “잔과 세례”의 의미도 모르면서 “할 수 있나이다.”(막 10:39)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다.

야고보와 요한, 아니 나머지 제자들은 축복과 명예를 가져다 줄 승리의 잔을 원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의 잔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 서슴치 않고 음란하고 저 맑은 세대의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막 8:38). 공의로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나(사 11:4). 따라서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하리라”(막 8:35).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절실하다(막 9:35).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승리의 잔이다(산 23:5). 진노와 심판의 잔이다(산 75:8).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잔이다(요 18:11).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요 13:36).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눅 12:50). 결국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막 14:50).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마 16:24). 자신의 것들이 조금도 남아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부와 명예에 대한 권력 등 주님이 보실 때 부적절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 주님이 우리에게 줄게요 마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벧전 4:13). 이런 자들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벧전 4:14).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신의 생명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이다”(벧전 4:19). 겸손히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할 수 있다.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는 예수님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한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이다(행 4:1~3, 12:2).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요”(고전 15:3).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겸손히 인간이 되셨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이 있었지만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벧 2:6~8). 한 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대속물(마 10:45)로 오셨다.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와 같이 요구하였다. 참으로 부적절하지 않은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진리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의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다. 매순간 깨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말씀을 읽고, 모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곧바로 실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절대로 놓지 말자. 십자가를 놓을 때 세상의 것들은 떨어지 나간다. 복음을 호리보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종이였을지라도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자. 매순간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은총의 종이 되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우리는 예수님의 종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종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성경 퀴즈에서는 선생님과 성경공부를 했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성경퀴즈 때는 다 맞힐 거예요. 이번에는 한 문제를 틀렸거든요. 성경학교가 있어서 참 좋아요. 재미있는 성경학교에 다음에는 친구를 꼭 데리고 갈 거예요!

최서정(유년부)

역시 예수님은 최고!

날씨도 정말 추웠지만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성경학교를 갔다. 엄마도 없고, 날씨도 너무 추워서 가기 싫었지만 꼭 참고, 성경학교에 갔다. 역시나 잘 갔다. 예배, 찬양, 게임, 놀이, 골든벨 성경퀴즈대회 모두 재미있었다. 선물까지 받았다. 예수님은 역시나 최고다. 그리고 나도 최고다. 마귀가 가지 말라고 나를 괴롭혔지만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나도 승리했다. "앞으로도 계속 승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김 술(초등부)

은혜의 말씀

다른 때와 달리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초등부까지는 별로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게 되니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놀라웠다. 말씀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이제 조금은 깨달았다. 올해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총 바울이 한 것처럼 진도를 열심히 할 것이다. 나는 이번 겨울성경학교 때 영어캠프에서 만난 친구를 데려와 줬는데, 거기서 너무 멀어서 오지 못했다. 그래도 엄마가 진도를 하려고 말한 것만이라도 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다음에는 꼭 친구를 데려올 것이다.

이디현(소년부)

성령님의 인도로

'이번 겨울수련회는 못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수련회 날짜를 알고 영어캠프를 신청한 게 아니라 영어캠프를 다녀온 후에 겨울수련회 날짜를 알게 되었으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이번 수련회는 못 가겠네.' 하면서 영어캠프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자 이상한 마음이 들었

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항상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신던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어 '성령님이 나를 수련회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수련회에는 친구들이 많이 안와서 실망을 했지만 '이번 수련회는 놀러온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하고 일련 실망의 마음을 버렸다.

개회예배 때 목사님이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지 두고 보자!"고 하셨을 때 기분이 정말 심복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꼭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선교 가는 바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도 있었다. 이번 수련회에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길성(중등2부)

몸도, 마음도 자랐다

중등1부에서 총원기동원으로 겨울수련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가라고 하셨고, 나 또한 2009년도의 목표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제목들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했다. 그동안 나는 집이 교회에서 멀다는 이유, 아니 변명과 함께 예배가 소원부해보다 더 일찍 시작한다는 핑계로 좀 소홀한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중등1부 겨울수련회가 끝난 뒤 소감문을 쓰면서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랐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확신을 가졌다.

중등1부 겨울수련회, 솔직히 나는 모든 게 다 좋았다. 제일 먼저 서먹하기만 했던 친구들과의 마음의 벽을 많은 활동들을 통해 쉽게 허물 수 있었고, 평소보다 기도가 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게 내로서는 굉장한 뿌듯했다. 지난 주일학교 형식적으로 다녔던 교회가 다음 주일부터는 진심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승의(중등1부)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며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처음 개회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파울거나 열려져 있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와 수련회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 데려온 친구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다가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친구를 진도해서 수련회에 같이 왔는데 나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자 내 자신이 한심하여 바로 주님께 회개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 시간부터는 참 재미있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저녁 부흥회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박 2일의 수련회가 참 짧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 수련회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며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변다윤(중등2부)

저것된 믿음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니?" "네." "예수님이 부끄럽지나?" "아니요." "그럼, 학교에서 식기도 드리나?" "아니요." "왜?" 이번 겨울수련회에서 천로영성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과 나눈 대화이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또 부끄럽지도 않은데, 왜 주님께 감사하라는 식기도조차 못 드릴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먹는 게 바빠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었을까? 아마도 이 모습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는 나, 바로 조우빈의 거짓된 믿음일 것이다.

솔직히 지난 한 해 동안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배시간마다 친구들과 떠들면서 말씀도 안 듣고, 건성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때마다 나는 사춘기니깐, 공부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 가면 정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회개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뒤로 미워하는 안 된다고, 사랑 사이에서도 고백을 해서 거절당한만큼 굉장히 상처받고 아픈데, 십자가에서 퍼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그 넘치는 사랑을 미루고 거절하면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나와 내 동료 친구들은 사춘기이다. 그만큼 세상의 것을 따르고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나의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누르보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모든 걸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식기도도 드리면서 말이다.

조우빈(중등3부)

부절없었던 걱정을 버리고

난 기쁜 마음으로 단기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교구에 신청했다. 날마다 현지어를 외우느라 노력을 했지만, 머리에 입착이 되지를 않아 마음 고생이 많았다. 문화도 모슴도 언어도 다른 그들 앞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지만 30분장 남짓 되는 언어가 왜 그리 어려운지... 집 안 곳곳마다 선교에 필요한 현지어를 붙여놓고 외우면서 "도와주소서, 둔한 저의 머리를 열어주세요."라며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러니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 1차 언어심사에 제등이 걸렸다. 하지만 낙심치 않고 기다리니 기회는 다시 왔고 우리 팀은 선교지로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누렸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전도를 시작했다. 나는 현지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순진하면서도 눈치도 빨라 내가 전하는 서툰 말을 잘 알아들었다. 전도가 끝나고 우리가 이동할 때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주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가회와 합심기도 시간에 그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였다. 선교지에 오기 전, 부절없이 걱정했던 내 마음은 어느덧 한없이 감사로 변했고, 내일이 기다려졌다.

반복되는 아침 경건예배와 그녀의 일정들을 계획하며 우리 전도팀원들은 차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찬송을 부르며 목적지로 향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피곤치도 않았으며, 어느덧 8박 9일은 번개같이 지나갔다. 우리 팀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선교지에 주님의 교회와 하루 속히 세워지고 또한 이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선교사(잠사, 6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6일(월) ~ 1월 31일(토)	중등2부 1팀	박원화
1월 26일(월) ~ 1월 31일(토)	고등부 1팀	홍순길
1월 26일(월) ~ 1월 31일(토)	고등부 2팀	채홍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일(월) ~ 2월 11일(수)	직원 1팀	최준호

2009년 단기선교(2)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종

우리를 보여준다. 세상의 종은 강제와 압박에 못 지어 복종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도리어 영광이요 기쁨이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위한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롬 1:1).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복음을 위한 종이었음을 매순간 밝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과 열망을 다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위한 종으로 부름 받은 자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주여, 이 죄인도

3개월 동안 우리 자신부터 날마다 옛 관습에서 벗어나 주님의 형상을 닮고자 순종하여, 우리는 죽고 오로지 택함받은 주님의 특권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라도 십자가 복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언제나 불화살로 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앞에, 십자가를 방패 삼아 영적인 곤으로 묶여진 군사로 대대히 나아갔던 선교지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조차 비껴 다닌 곳으로 이방인들을 접하지 못했던 오지였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매우 생소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우리가 말을 건네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경계심을 갖고 대했다.

그러나 선교지를 두고 기도했던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잔잔한 물결을 만들어 주시곤 하였다. 많은 영혼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곳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다. 한 영혼이라도 만나면 나 자신도 어느새 영혼의 목마름에 해결되어 주님에 대한 열결고리를 맺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리고 나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이 나의 몸을 감싸고 있고, 나의 입에선 "주여, 이 죄인도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입술이 될 수 있네요."라고 뜨거운 눈물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주님께는 짐박이 될 수 없는 허물뿐인 나의 선교사 된 모습을 보여드리 그곳에도 언젠가는 그들이 그토록 배척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

최정훈(잠사, 24교구 10지역팀)

주님의 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14년 전, 커튼이 드리워진 방의 어둠처럼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주님은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취주시고 보혈의 피 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 또한 주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천히의 외산부 제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목전에 겹겹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가 아내와 다짐했던 14년 전의 약속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약속의 말씀을 불리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루아침에 삼남매의 자식과 소유했던 모든 재물을 잃고 자신의 몸까지도 약함이 발하여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욥 1:21).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욥의 믿음은 언제나 저에게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삶 여정에 있어서 어떠한 연단이 있었을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고난은 잠자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한 약속의 말씀을 더욱 의지합니다.

저는 타문화된 선교사역에 비전을 갖고 아내와 함께 오래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시고, 주님의 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욥을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단련하신 주님의 연단의 손길이 저에게도 미쳐 있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오늘날 십자가 복음만을 불꽃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윤승림(성도, 8교구)

선교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작로를 해야 한다.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마 10:16)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경험에서 우리나를 말씀으로 어둠의 세상이 본질적으로 복음의 빛을 배척하고 싫어하며 미워한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종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이리떼 속의 어린 양처럼 위협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왕국을 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이다. 따라서 선교사가 복음과 함께 박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천국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마 5:10).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평정한 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각 개인에게 맡기신 생의 최대 임무로 동시에 특권이다. 충현의 단기선교사들은 자신의 많은 복음전파의 사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종으로 충성하자.

(선교위원회)

세가족양육부 1월 수료자

십자가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



♥ 예수님은 방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하게 됩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의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경순)

♥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저와 죄를 대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야할 가장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한성수)

♥ 항상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 기도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더 많이 행복해지고 때마다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늘 기도서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게 힘을 감사드립니다. (최경미)

♥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영육 자체이며 나를 바로 세우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즐겁고 평소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도생활을 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김경각)

♥ 모친이 늘 중언회교에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셨지만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모친의 뜻대로 하지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 4월 돌아가신 이후 열심히 다녔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것 뿐 아니라 미천한 나에게는 큰 심사와 사랑을 주신 감사한 분이십니다. (이시복)

♥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음없던 심적 갈등들이 많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 어떤 시련에 부딪히면 먼저 기도로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원망들이 주께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 믿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혜숙)

♥ 2008년 한해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고, 내가 하는 일의 계승위가 교회에 오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인선)

♥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믿음생활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란 분이 어색하지 않게 되어 기도를 드리는 빛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승욱)

♥ 저는 불교신자였습니다. 남편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교회에는 평안함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셨고 나의 마음을 다하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희)

♥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곳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두 달을 위해 기도를 하였는데, 이사가게도 그러는 제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참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절도 보았는데 믿지 않는 남편도 그런 저의 행동을 너무나도 싫어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떤 것을 주님께, 맘을 도구로 하여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앞으로 변화되는 마음으로 주님 자녀로 빛과 소금 향기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강명자)

♥ 나의 구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제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의 죄를 사해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서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영중)

♥ 천국의 전도로 중언회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 구주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심을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유정호)

♥ 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 생명, 새 삶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알면 알수록 주의 기이한 사랑에 축복받은 자녀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연희)



정지기칼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사랑하는 믿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대를 이어온 지 4대째,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자라온 나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감동과 감화도 없이 의무적으로 주일성수, 십일조 생활, 공예배 출석을 하는 그저 단조로운 신앙생활의 연속이었다. 외식과 위선으로 회합한 무덤과 같은 연약한 믿음을 통해 어느덧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연락을 즐기며 살던 나에게 경제적으로 크나큰 난관에 부딪히면서 방황하게 되었다. 게다가 심장의 혈관까지 막혀 죽음에 직면하기도 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였고, 십자가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찬송 423장, 528장, 314장을 통해 끊임없이 주께 못할 눈물 속에 회개하게 하시고, 요한서 5장 4~8절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받게 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셨다. "아름다운 집이며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녀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므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힘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리라"(사 46:3~4).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안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다. 하지만 원죄와 더불어 솟아나는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 항상 두 세계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갈림길에서 예배 시에 들려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도전받게 하셨다. 또한 자기 부인을 통해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죽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참회의 기도와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시는 위임복사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13:5)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생애를 통해 따르고 행함이 있어야 하겠기에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늘도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을 것을 다짐한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장철규
(장로, 21교구장)

십자가의 길

가장 위대한 일

한 신실한 성도(S.D. Gordon)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The greatest thing anyone can do for God and man is to pray.)라고 고백하였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이다. 기도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모든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렇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15). 지금은 진심으로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위대한 일에 한 마음이 되자. 낙과 무릎이 되자.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1	차유정	24	청년부	주순숙(18)	160	윤현찬	2	청년1부	정재철(24)
152	이지연	22	청년부	채일숙(18)	161	문순환	18	청년2부	이근호(20)
153	최경자	3	장년2부	김종민(17)	162	백진기	4	청년1부	백수현(4)
154	송민준	19	장년부	이윤희(1)	163	이규구	10	장년2부	육이재(6)
155	조용선	11	청년1부	정영애(11)	164	박진성	9	청년2부	이미지(4)
156	송훈민	1	장년2부	박희정(1)	165	김정은	9	고등부	공예미(9)
157	김유철	21	장년2부	이병진(15)	166	이정학	13	청년1부	
158	이영자	4	장년3부		167	김은재	13	청년1부	
159	이길성	2	장년부						

* 중언회교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세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 | | |
|---|--|
| 1. 집사회 지회별 월례회
일 시 : 2월 월요새벽기도회 후
장 소 : 갈릴랴룸 | 2. 권사 기도회(1차)
일 시 : 3일(화) 11:00(10:00 교회출발)
장 소 : 충헌기도원 |
| 3. 경기도회
일 시 : 4월 수요일2주에배 후
장 소 : 당회실 | 4. 집사회 전체기도회
일 시 : 6월 금요일찬양집회 후
장 소 : 갈릴랴룸 |
| 대 상 : 안수집사 전원 필참 | |

별 세

1. 김창선 타고권사(이경희 집사의 시모, 2교구 개나리구역) / 27일 별세, 29일 장례
2. 이만호 타고장로(이형숙 권사의 부친·조홍건 안수집사의 장인, 18교구 여의문대구역) / 28일 별세, 30일 장례
3. 이순례 타고권사(정길배 권사의 모친·김갑조 집사의 장모, 22교구 영동구역) / 28일 별세, 30일 장례

2009년 제4차 CMTC

(교육과정 : 3주간, 장소 : 갑철리울)

시 간	2월 1일(오늘)
18:15~19:15	제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19:30	제2강 천원교회 선교정책
시 간	2월 8일(다음 주일)
18:15~18:45	제3강 선교지 영적 상황
18:45~19:10	제4강 복음을 통한 타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제5강 영성기도회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전도회 2월 11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2월 14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선교언어 훈련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501호(캄보디아) 510호(베트남) 504호(네팔)

2009년 겨울수련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롬 1:1~4)		
부서	일시	장소
대학부	2월 3일(화)~5일(목)	충청기도원
장년부	2월 7일(토)	제교육관 207호
청년부	2월 13일(금)~14일(토)	충청기도원
예배부	2월 14일(토), 성안인	예배대부실
성년부	2월 28일(토)	제교육관2층, 코요노나리아, 예배대부실

2009년도 제1차 학습 및 세레스

날짜	시간	특강자	교수	세미나 주제 및 강사	장소	유이세미나	장소
2월 6일 (대형 주일)	12시 15:00~15:50	평화 개요 (강호정 목사)	교수관 300호	세례란? (최현숙?)	교수관 300호		
	22시 16:00~16:40	기독교란? (박종현 목사)	교수관 300호	교회를 (박종현 목사)	교수관 300호		
2월 15일 (주일)	12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양현철 목사)	교수관 300호	7월은 (이영현 목사)	교수관 300호	유이세미나 (매월 첫째 주)	301호
	22시 16:00~16:40	문 단	교수관 300호	문 단	교수관 300호		
2월 22일 (주일)	천안여배	성인 양육 세미나(천안여배, 분주) 오후 6시~7시(한정숙 목사)	유이 300호	유이 300호	유이 300호	(오후 3시, 갈릴리) 오후 3시(한정숙 목사)	

새벽기도회 (2/2~2/8)

	2 (월)	3 (화)	4 (수)	5 (목)	6 (금)	7 (토)	8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노광현	박용운/권오준	유재진/김성현	김완수/강두형	최성득/김윤환	최강진/이복순A	이성진/류진희
설교 본문	막 11:1-11	단 6:1-9	단 6:10-18	단 6:19-28	단 7:1-14	단 7:15-28	단 8:1-14

예배 담당 (2/4~2/8)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2/4	수요 I	교제, 기흥, 용서(요일 11:1-10) 김성관 목사	최강진	조연숙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호산나 찬양대)
2/4	수요 II	우리도 그들처럼(대상 20:4-8) 이재현 목사	이윤식	주순희	십자가에 붙은 피로써(실로암 찬양대)
2/6	금요일양	김성관 목사	유은하		예루살렘 찬양대 / 핸드벨 찬양 / 물품 차회
2/8	주일 I	몇 사람이아도 구원하고자(고전 9:22) 이재현 목사	이재현	최세진	(예배 전 찬양)
2/8	주일 II	몇 사람이아도 구원하고자(고전 9:22) 김성관 목사	이재영	김홍주	나아는 날 공물을 때리며 / (베냐민 성읍)아나눔 오케스트라
2/8	주일 III	몇 사람이아도 구원하고자(고전 9:22) 김성관 목사	김찬원	김영달	순례의길 성령의 불 / 스코티스 찬양 / 아나눔, 한빛교회(베냐민 성읍)아나눔 오케스트라
2/8	주일 IV	몇 사람이아도 구원하고자(고전 9:22) 하종철 목사	이성진	김보성	갈릴래 향방을 주께 드리고 / 물품 관영(아나눔 오케스트라)
2/8	주일 V	몇 사람이아도 구원하고자(고전 9:22) 김근영 목사	박용현	이보식	나 지니온이 아스기 전파하고 / 오보에 조영현(베냐민 오케스트라)
2/8	주일 V	와서 보라(요 1:35-42) 김성관 목사	김현규	유은숙	예수 십자가 / 가브리엘 찬양대 / 중독구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종 류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당
주일침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일양심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철야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중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스 랑 부	오후 12:15	갈 밀 리 회
스 랑 부	오후 11:00	북치관 지하4호
예배 다부	오전 9:00(학생) 오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택 타 부	(주)전국선교회 500 (금)제3교육관 301호	신교관 1층
제1교육관양부	오후 12:10	대 나 니 홀
제1교육관전교부	오후 11:00	아 뎀 홀
제1교육관주교부	오전 8:30~오후 3:00	제1교육관 307호
총제일회인집	주요건	제2교육관 107호
총제일회인교육	주요건	충원 집 회

2월 충현 기도의 창

- 2) 2월 20일 금요일양직의 시종 일을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그리스도의 기도, 시 16)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 3) 중환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시 1)이 되게 하소서.
- 3) 위임목사직의 영육을 강권(마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들 부인하고 십자가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게 주시라.
- 4)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한 마음과 한 뜻(딤후 2:2)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9)로 세우 주시라.
- 5)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골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입국이 양성(딤후 2:4)되게 하소서.
- 6) 1·1·1 전도(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수·토요일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7)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행 13:2)가 되게 하소서.
- 8)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제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9) 중환의 재단(유지·통산·건축)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주시고, 현재(고전 2:15)되게 한 날삼십전 건물(유)은 총재로 직행(고 2:15)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illegible]

■ 부 목 사

[illegible]

간덕환 지교구위원장	장 훈 이교구	이희식 선교위원
장중신 지교구장	양승호 위원장	이성진 이교구
황진근 위원장	유재민 서기	김병평 이교구
유원철 위원장	탁원진 이교구	김하수 이교구
이영환 지교구	이영환 지교구	이광현 이교구
김다영 지교구	박준식 이교구	최진철 이교구
이재원 지교구	이순식 지교구	안일환 지교구
홍순애 지교구	이교구	김말자 지교구
최은진 지교구	전은희 지교구	김경자 지교구
정원희 지교구	정원희 지교구	임태준 지교구
이복순 지교구	전영희 지교구	이혜숙 지교구
장국영 지교구	정일환 지교구	서병관 지교구

■ 오일부 부지도 강영기

김원섭
노은영